

聖德大王神鍾銘의

解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李 昊 榮

一、序言

二、判讀과 解釋

三、梵鍾에 대한 觀念

四、神鍾의 鑄造 期間

五、聖德王의 薨年 문제

六、結語

一、序言

필자는 「新羅 中代王室과 奉德寺」(史學志 八輯 所收 檀大 史學會 刊 九七四)라는 論題로 奉德寺 創建과 神鍾 鑄造에 따른 당시의 背景을 간 단히 推論한 바 있었다. 그때에 言及하지 못한 것도 있으려니와, 그 후 신배 학자들이 判讀해 놓은 銘文을 서로 비교해 보던 중앙간의 문제 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몇 가지 점을 提起코자 한다.

神鍾銘은 磨損된 부분이 많아 判讀할 수 없는 글자도 적지 않다. 따 라서 현재까지의 不完全한 부분은 거의 그대로 남겨 둔다 하더라도 判讀 된 銘文에 대한 解釋에는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銘文 解釋은 기왕에 학자들이 해 놓은 바도 있으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만을 지적하려고 한다.

첫째는 이제까지의 몇 학자들의 判讀을 비교해 보고, 解釋에는 당시의 政治的 背景과 아울러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와 같은 다른 文獻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를 들었다.

둘째로 銘文에는 梵鍾에 대한 觀念이 어떻게 비쳤는지 살펴보고 한 다. 이것은 梵鍾의 概念을 鍾銘 속에서 찾는 것이 뜻 있는 것이라 생각 하기 때문이다.

세째는 鑄造期間을 생각할 때에 樣式論이 물론 중요하지만, 당시의 政治的 추세와 鑄造關與人物 金邕과 金良相은 비교적 뚜렷한 존재이 므로 이들을 살핌으로서 鑄造期間을 추측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 네째 聖德王의 薨年을 알 수 있는 銘文을 지적하였다.

二、判讀과 解釋

神鍾銘의 判讀과 解釋 또한 지금까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러 신배 학자들의 부단한 연구 결과로, 이제는 鍾銘 內容 전반에 걸쳐 일반이 이해될 수 있을만큼 進展을 보았다.

생각컨대 鍾銘은 이미 「三國遺事」의 撰者 一然도 判讀한 것 같고, 이 후 「新增東國輿地勝覽」·「海東金石苑」·「東京雜記」 등에 수록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海東金石苑」에는 鑄造에 관여했던 人物과 年號까지 포 함하여 그 全文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文獻에 들어 있는 銘文을 根幹 으로 하여 日人 學者들은 拓本과 對照해서 文獻의 誤字를 校正하는데 힘썼으니 葛城末治·關野貞·今西龍博士 등이 곧 그들이었다. 근 년에 洪思俊 선생은 「奉德寺 梵鍾考」와 아울러 鍾銘序를 對譯하였으며, 黃壽永博士와 坪井長平씨가 다시 관독했다. 그리고 「東京雜記」와 「新增 東國輿地勝覽」이 번역됨에 따라 鍾銘에 대한 理解에도 많은 도움을 주 었다. ①

그러나 神鍾銘에는 많은 故事熟語로 意味를 含縮 시켰고 隱喻와 象徴 的 表現이 들어 있어 難解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것은 단지 文字의 解 釋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실사 銘文이 파악되었다도 銘文 자체가 당시의 역사적 사실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神鍾銘은 해석과 아울러 새로운 批判을 가하므로써 당시의 歷史에 대한 解明이 더 우 명백해질 것으로 본다.

먼저 학자들의 銘文 判讀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은 일치 되나 그 중의 몇 자만이 서로 다르다. 關野貞博士는 「海東金石苑」의 神鍾銘을 拓本

과 대조하였지만 너무 번거로우므로 이를 생략하고, 널리 알려진 「朝鮮金石總覽」所載 神鍾銘을 基準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神鍾銘判讀 比較表 ②

52	51	50	49	48	47	46	44	43	36	29	29	28	26	24	22	21	19	19	18	17	14	14	14	12	10	6	1	1	行
大舍	次博士奈麻	大博士大奈麻	大舍金	奈麻金	錄事奈麻	大奈麻	得使金	阿浪金	大奈麻	繼業	慧日無春	與物需均	區字分張	金書	臣弼文拙	瓊蕪之叢	無底之下	聲若龍吟	工匠盡模	何行有慙	莫木之林	六街龍雲	令德冠於當時	欲鑄一大鐘	繼守丕業	崇禮樂以觀風	翰林郎金	大夫太子	朝鮮金石總覽
			金	金		金		體	洪端		無	與需	張	弼文	粵	下	龍	畫模	德	木	街	令當	大鐘	守	以觀	休弼	大	葛城	
			없음	없음	없음			敬	端		無	與需	頂	弼文	粵	下	聲	畫摸	德	木	街	令當	大鐘	守	而(以)觀	弼(粵)	太前司	今西	
朴	朴	朴			一珍	甫		體	姚瑞	施	無	與需	張	弼奧拙	方	聲	畫(畫)模	德	米	街	令常	大鐘	守	以觀	弼奧	大兼朝	洪思俊		
朴負	朴賓	朴從	張幹		如芬	使		體	姚瑞	施	無	與需	張	弼奧拙	方	聲	畫摸	德	米	街	令常	大鐘	守	以觀	弼奧	大兼朝	黃壽永		
朴	朴	朴	張		一珍			體	姚瑞	體	無	與需	頂	弼文拙	下	聲	畫模	德	米	街	令常	大鐘	于	以觀	弼粵	大前司	坪井		
朴負	朴雲	朴						體	體	無	與需	與需	弼奚拙	聲	畫摸	德	米	街	令常	大鐘	守	而觀	弼奚	大兼朝	備考				

以上的 表에서 「備考」란은 필자로서도 확실히 判讀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이지 않는 것은 공란으로 두었다. 그런데 銘文의 대부분은 일일치되거나 人名은 거의 관독이 어려워 不完全한 채 남을 수밖에 없다.

人名의 경우는 四三行에 「體」를 「敬」으로 읽어서 「阿浪金敬信」이라 한 것은 당시의 역사 해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金體信」이고, 그가 어떤 人物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一七行의 「德」은 「愆」으로도 관독했으나 그 意味는 같은 것이어서 해석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金石文의 判讀에는 실제의 字形도 중요한 것인데 常用字·略字 등이 서로 混淆된 것을 학자들의 저서 속에서 볼 수 있고, 그것은 活字의 제약 때문인 듯하다.

이제 判讀이 다르므로 그 意味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를 보겠다. 一四行의 「令德冠於當時」를 「今德冠於當時」라 하면 이것은 그대로 類似한 意味가 된다. 그러나 一三行에서 「大」와 「丈」·一四行의 「木」과 「米」는 전혀 그 해석이 달라지는 예이다.

「敬捨銅一十二萬斤 欲鑄一丈鍾一口」라고 하면 이것은 이미 景德王 때에 鑄鍾 계획이 매우 구체화된 듯이 느껴진다. 黃壽永 博士에 의하면, 이것은 唐尺이었을 것이라 하며, 一丈은 一〇尺으로 오늘날 神鍾肩帶까지의 長과 거의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銅一十二萬斤이란 一〇尺의 鐘을 만드는데 所要되는 量에 맞추어 敬捨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總高는 一尺二分五分(口徑七尺三寸五分)인 唐小尺은 오늘날 曲尺의 〇·九八이므로, 唐小尺으로 換算해 보면, 總高는 一·二二五尺으로 〇·二尺의 차이가 난다. 또 龍鈕를 除한 肩帶 頂上까지는 九·九一尺이므로 唐小尺으로는 九·七一一尺이 되어 〇·一八二尺이 不足하다.

또 銅一二萬斤에 대하여는 坪井良平씨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것은 使用量이며 完成重量은 一八·七五〇kg 内外로 보아 一斤은 〇·一五kg이라 했고, 여기서 鑄減 二割을 계산하면 一斤은 〇·一九五kg이라 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현재 一斤(〇·六kg)의 1/3에 해당한다면서 唐에는 大·小二種의 斤이 있는 바, 神鍾 一十二萬斤은 小斤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③ 이와 같이 크기와 무게가 景德王 때에 定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鑄鍾의 着手도 이 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필자는 後

說하는 바와 같이 景德王 때는着手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莫米之林離離乎外境」이라 한 것은 文字的 解釋은 쉬우면서 意味의 把握은 좀 막연한 감이 있다. 번거로우나 前後의 文句를 살피면,

(A) 殊祥異於千古 (B) 令德冠於常時

(C) 六街龍雲蔭灑於玉階 (D) 九天雷鼓震響於金闕

(E) 莫米之林離離乎外境 (F) 非煙之色煥煥乎京師

(G) 此即報茲誕生之日 (H) 應其臨政之時也

로 되어 있다. 이것은 惠恭王이 誕生할 때부터 臨政하고 있는 동안(이 神鍾銘을 撰하는 때까지) 일어났던 殊祥의 例를 誇張된 文章으로 描寫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즉 (C)와 (D), (E)와 (F)는 絶妙한 對句로 殊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당시에 실재했던 殊祥이라고 確言키는 어렵다.

그러나 注目되는 것은, (E)의 「莫米之林離離乎外境」이라 한 것에 대해서는, 「三國遺事」·「三國史記」에서 그와 거의 비슷한 記錄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三國遺事」 惠恭王條에,

今浦縣稻五頃中 皆米顆成穗

라 했는데, 이것이 大曆二年의 일이라 했으며, 「三國史記」 同王 三年條에는,

九月 金浦縣 禾實皆米

라 하였다. 金浦縣은 長堤郡의 屬縣으로 高句麗 때는 黔浦縣이었는데 景德王이 改名한 것이며, 오늘날의 金浦이고④ 바로 이것은 「外境」에 해당한다. 과연 비이삭이 아니라 쌀이삭이 달렸었는지는 믿기 어렵지만 記錄上으로는 지극히 부합된다. 그렇다면, 惠恭王이 誕生하던 때에는,

秋七月二十三日 王子生 大雷電 震佛十六所(三國史記 景德王十七年條)

라 있고, 또 그가 太子로 封해진 해에는,

春正月 都城寅方有聲 如伐鼓 衆人謂之鬼鼓(三國史記 景德王十九年條)

라 있는 것은 (C)(D)와 비슷한 점으로 볼 수 없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三國史記」 惠恭王元年 十月條에는 「天有聲如鼓」라 하였고 同王 三年 條 七月에는 「三星隕王庭 相擊 其光如火迸散」이라 하였다. 이러한 異變

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히 惠恭王의 誕生과 太子로 될 때 그리고 即位 후 三年까지의 사이에 현저한 것은 (C)(D)(E)(F)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들이 「殊祥異於千古」에 해당하며, 이것을 (G)에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G)는 이러한 殊祥이 「惠恭王의 誕生하는 날을 알려주었고 또 臨政하는 때에도 응하였다」(나타났다는 뜻)이라 하겠다.

끝으로, 「不意子靈 有心老誠 四十餘年」이라 한 「不意子靈」에 대하여, 宗래의 해석을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다. 「不意에 子靈」이라든지, 「작은 무 일에는 不問에 부치고 큰 사업에 마음 쓰기를 四十餘年」이라 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子靈」이 楚人 屈巫의 字라면 그의 故事(春秋左氏傳 成公)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뜻하지 않은 아들의 혼령(죽은)」이라 해야 하겠다. 이러한 의미는 「三國史記」 本紀에서 聖德王 十四年에 太子로 封한 重慶이 同王 十六년에 죽었다는 기록을 나타낸 말이라고 생각한다.

解釋에 있어서 모호한 것은 韻文이지만, 鍾銘에 「愁雲忽慘 慧日無春」의 「無」를 坪井氏は 「無」로 판독했다. 이것은 「無」字가 확실한데, 이것은 景德王이 父王인 聖德王과 母后의 昇遐를 哀慕하는 표현으로 「愁雲은 홀연히 참담해지고, 慧日은 봄이 없다」는 文字的 해석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鍾銘의 判讀·解釋에 理解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三、梵鐘에 대한 觀念

撰者 金弼奚는 道가 어떠한 것인가를 규정지으므로써 序頭를 펴가고 있다. 즉,

夫至道包含於形象之外 視之不能見其原 大音震動於天地之間 聽之不能聞其響

이라 하였다. 여기서 「至道」、「其原」、「大音」、「其響」은 모두 그 표현이 다를 뿐, 佛敎의 根本의 眞理 즉 佛陀의 眞理의 말씀, 그것을 나타낸 말이다. 그는 道가 形象으로 되어 있지 않기에 때문에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며, 또 佛陀의 眞理의 말씀 즉 大音이 진동해도 들을 수 없

다고 했다. 결국 道는 어떻게든 存在하며 그 소리 또한 있는 것이지만 단지 볼 수도 들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 그 眞理의 말씀들을 더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밝혀야 할 차례이다. 즉,

是故 憑開假說 觀三眞之奧載、縣舉神鍾 悟一乘之圓音

이 그것이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道이기 때문에 또한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假說』을 憑開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佛陀의 眞理를 깨닫는 三乘의 오묘한 수레(載)가 있으니 聲聞乘·獨覺乘·菩薩乘이 곧 그것이다. 그러므로 神鍾을 달아서 一乘의 圓音을 깨닫는다는 것이었다. 一乘의 圓音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一心眞如한 佛陀의 眞理의 말씀인 것이다.

이 圓音에 대해서는 元曉가 그의 大乘起信論疏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⑤ 元曉는 「圓音」이 곧 「一音」이라 하면서 佛音과 衆音을 비교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예들면, 音遍十方 隨機熟處 所不聞 故名圓音

이라 하였고, 또 「就佛言之 實有色聲 其音圓滿 無所不遍 都無宮商之異 何有平上之殊 無異曲 故名一音 無不遍 故說爲圓音」이라 하였다. 佛音이十方에 두루 들려오더라도 「隨機熟處가 아니면 들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가할 수 있는 전거는 大乘起信論에,

所謂如來在 衆生利根 能說之人 色心業勝 圓音一演 異類等解 則不須論 若如來滅後 或有衆生 能以自力 廣聞而取解者……

라 있으므로 「圓音」은 佛陀의 말씀을 이른 것이 틀림 없다.

이러한 圓音을 깨닫기 위해서 神鍾을懸擧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梵鍾에 대한 撰者의 觀念은 지극히 深化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때를 알리고 대중을 모으기 위해서 다는 것이 梵鍾이라는 通說과는 거리가 멀고, 印度에서 大衆을 召集할 때 친다는 捷徑와도 趣意를 달리한 것 같다.

時代의 거리는 크지만 朝鮮時代의 鍾銘은 비교적 많은 바, 崔恒은 圓覺寺 鍾銘(朝鮮佛教世界 一號)에서,

天以雷以震萬物 佛以鍾以警萬衆 玄化固無方也 然非大壯之雷 則不能

鼓羣動 眞教亦無邊也 然非大音之鍾 則何覺大夢乎 周流六虛 暢神化者 莫疾乎聲 而流洪韻者 莫良於金也 鍾之爲用大矣哉

라 하였다. 天을 강조한 것은 儒家의 觀念이라 하더라도 鍾聲으로 衆生을 깨우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朝鮮 第八代 睿宗元年(一四六九)에 만들어진 洛山寺 銅鍾銘은 金守溫의 撰으로 銘序에,

我佛如來之設教也 必有像廟之嚴 所以因衆生之目 視而生其信 必有鍾鼓之設 所以因衆生之耳 聽而警其心 蓋欲衆生 由六塵之外 感以修六根功德者也

라 하고 있어, 鍾聲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六根의 공덕을 다게 한다는 것은 神鍾銘에서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또 「釋門儀範」下 朝禮鍾頌에는, 願此鍾聲遍法界 鐵圍幽暗悉皆明 三途離苦破刀山 一切衆生成正覺

이라 있는 바 離苦와 正覺은 鍾聲의 本原인 것이다.

어떻게든 간에 「悟一乘之圓音」은 神鍾뿐만 아니라 梵鍾을 다는 目的이며, 따라서 撰者는 물론이요 당시 新羅人의 梵鍾에 대한 觀念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梵鍾의 예를 印度와 中國에서 찾아본 다음, 神鍾을 묘사하

空而能鳴 其響不竭 重爲難轉 其體不蹇

이라 하였고 다시,

神器化成 狀如岳立 聲若龍吟 上徹於有頂之巔 潛通於無底之方 見之者 稱奇 聞之者受福

이라고 하였다. 이제 이 鍾은 평범한 物體가 아니다. 「神器」이며 「圓空 神體」인 것이다. 前揭 「釋門儀範」에서 「一乘圓教」라 하였는 바, 圓形인 鍾이 佛敎를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梵鍾의 소리는 佛陀의 圓音이기 때문에 有頂天으로부터 無底之方까지 들리며 따라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福을 받는다고 했다.

이러한 「神體」인 까닭에 그 위에 王者의 元功을 새길 수 있는 것이고

또羣生이 離苦할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즉, 「所以王者元功克銘其上羣生離苦亦在其中也」라 한 것이 그것이다.

撰者는 道의 本質을 파악하여 梵鍾으로 轉移시키고, 다시 梵鍾의 概念을 규정하므로써 王者의 元功을 새길 수 있는 이유를 간극 없이 도출해낸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당시의 情況을 警告하는 複合된 의미 가 내포된 것이다.

四、神鍾 鑄造 期間

이미 아는 바와 같이, 「大曆六年歲次辛亥十二月十四日」이라는 銘記로 神鍾은 惠恭王 七年(七七二)에 鑄造된 것임을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이 神鍾은 그 鑄造를 언제부터 着手하였으며, 그 鑄鍾 理由는 어디에 있었겠는가. 또 실제로 完成된 것은 바로 「大曆六年」이겠는가, 혹은 그 以後에 完成되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問題의 대부분은 洪思俊 선생에 의하여 제기 되었고 연구되었다. ⑥ 그리고 그것은 주로 樣式論에 의존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에 대하여 方法을 달리하여 見解를 밝히려고 한다. 즉 銘文에 보이는 중요한 鑄鍾關人物인 金邕와 金良相을 중심으로 그들의 官階의 進出과 당시의 政治的 推移를 살펴봄으로써 鑄鍾期間을 推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말해 들 것은 梵鍾 鑄造上의 문제이다. 全相運교수가 밝힌 바에 의하면, 梵鍾은 音色이 나쁠 경우 처음부터 다시 부어 만들어야 하고 또 音色 못지 않게 外形도 修整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⑦ 그것은 결국 音色과 外形이 鑄造者들의 意圖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야 하므로 二重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聖德大王神鍾은 「空而能鳴 其響不竭 重爲難轉 其體不萎」하고 또 「狀如岳立 聲若龍吟」해서 「見之者稱奇」라 銘記하였으니, 그 소리나 形態에 있어서 雄壯美麗함을 그들의 理想으로 하였음이 틀림 없다.

그러면 이 雄壯美麗한 神鍾을 鑄造한 理由를 앞에서 말한 「悟一乘之圓音」에만 들 것이며, 또 얼마나 오랜 期間에 걸쳐 完成되었던 것일까.

필자는 前掲 拙稿에서 鑄鍾 計劃과 動機를 당시의 中代王室의 政治的 理由에 두었던 것이고 그것이 銘文이나 「三國遺事」의 記錄과는 背馳되더라도 아직 그러한 견해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단지 鑄鍾에 着手했던 時機를 어느 때로 보는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鑄鍾 計劃은 景德王이 聖德王을 위해 銅 一三萬斤으로 一丈鍾을 만드려고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銘記되어 있다. 이것은 景德王 때에 이미 鑄鍾을 着手했다는 것인 지, 아니면 그 계획만 가지고 있다가 遺言을 남겨서 惠恭王 때에 비로소 着手 完成했다는 뜻인지 매우 모호하다.

洪思俊 선생은 樣式과 記錄의 解釋으로 「長久한 時日이 흘러갔음을 짐작하겠으므로 同時代의 一人作이 아니라 본다.」^⑧ 고 하였다. 全相運교수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三〇년이란 긴 세월을 애 쓴 끝에 이룩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奉德寺 鍾」^⑨이라 하였다.

景德王이 銅 一三萬斤으로 一丈鍾을 계획한 것은 대강 언제부터 일까. 銘文序에 父母에 대한 情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父母를 위해 鑄鍾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早隔慈規」란 일찌기 母를 여의었다는 뜻이고, 三國史記 景德王 七年 八月條에 「太后移居永明新宮」이라 있으며, 景德王의 母인 太后는 同王 七年까지 生存했다고 본다. 따라서 太后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七年까지는 鑄鍾이 계획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同王 一三年에 聖德王碑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鑄鍾 계획은 一三年 이후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皇龍寺鍾을 주조하였다.

이후 一六年에는 信忠을 上大等으로 삼고 祿邑을 復賜하고 地名과 地方制를 改編하였으며 一八年에는 官名을 改正하였다. 이 일련의 改革은 그의 專制君主로서의 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의 末期에 이르러 크게 政治的 變化를 가져오는 것 같다. 즉 一九년에는 侍中인 兼相이 물러나고 金邕이 대신하고 곧 乾運(후일 惠恭王)이 太子로 封해진다. 二二年에는 上大等 信忠이 侍中 金邕와 함께 물러나는데 金邕은 곧 神鍾銘에 보이는 여러 官職을 兼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二三年에는 金良相이 金邕에 뒤이어 侍中職에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

은 이미 매쯤부터는 金邕·金良相의 體制로 權力이 집중되었고, 특히 金邕이 專橫 執權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⑩

이와 같은 過程 속에서 景德王의 鑄鍾 계획은 實現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銘序에 「立志未成 奄爲就世」라 한 것은 着手 以前の 계획이었다고 보고 싶다. 혹은 이것은 前掲 拙稿에서 말한 景德王의 兄弟 繼位에 의한 血統을 강조했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專制王權이 強化되었을 때는 그 절실한 필요성이 약화되었을 경우 鑄鍾 계획은 실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銅一二萬斤이란 당시에 있어서 그다지 공급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景德王 때 皇龍寺鍾을 만드는 데 四九七、五八一斤과 芬皇寺藥師 銅像을 만드는 데 三〇六、七〇〇斤이 들었다 했다. 그리하여 이 神鍾一二萬斤을 포함시키면 八二四、二八一斤이나 된다. 그리고 文武王 一二年에는 銅을 中國으로 수출하는 기록이 있는 바, 銅三萬三千分과 銀·金·布·牛黃 등이 함께 들어 있다. ⑪ 全相運 古수에 의하면 新羅銅은 페르샤 靑銅과 함께 中國에서 높이 평가되었다고 하니 ⑫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銅生産量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金邕과 金良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銘文에, 檢校使兵部令兼殿中令司馭府令修城府令監四在寺府令并檢校眞智大王寺 使上相大角干臣金邕

檢校肅政臺令兼修城府令檢校感恩寺使角干臣金良相
이라는 긴 兼職官名의 소유자들이다.

먼저 金邕은 王室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겠다. 鈴木靖民씨는 그의 논문 「金順貞·金邕論」에서 金邕은 惠恭王의 異腹兄弟라고 推定하였지만 ⑬ 아는 바와 같이 順貞의 딸이 景德王妃 三毛夫人이고 金邕은 順貞의 子孫 ⑭ 이라 한 데까지 밝혀졌다. 그런데 神鍾銘序에

太后恩若地平 化黔黎於仁教 心如天鏡 獎父子之孝誠 是知朝於元舅之賢 夕於忠臣之輔

라고 하였다. 여기서 太后 다음으로 내세우는 「元舅」란 대체 누구이었는가, 「元舅」의 用例를 中國 歷史에서 하나만 찾아 보기로 한다.

「後漢書」賈·何列傳을 보면,

何進 字遂高 南陽宛人也 異母女弟選入掖庭爲貴人 有寵靈帝……貴人立爲皇后 徵進入 拜侍中 將作大匠 河南尹……初何皇后生皇子辯 王貴人生皇子協……羣臣請入太子 帝以辯輕佻無威 不可爲人主 然皇后有寵且進 又居重權 故久不決 乃帝崩……皇子辯乃即位 何太后臨朝 進與太傅 隗輔政 錄尚書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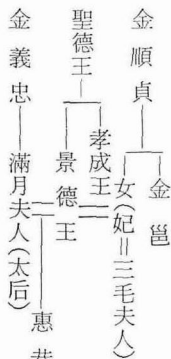
이라 하였다. 論에서는

靈帝·何進 藉元舅之資 據輔政之權 內倚太后臨朝之威

라 했다. 何進은 異母弟가 皇后로 되면서 점점 官階가 擡진되었는데 靈帝가 죽을 무렵부터 政權을 독점하고 靈帝가 죽자 何皇后의 所生인 辯을 皇帝로 즉위시켰다.

이러한 何進에 비견될 수 있는 惠恭王 당시의 人物은 바로 金邕인 것이다. 이제 다시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몇 가지 理由를 들면,

- ① 順貞의 女가 景德王妃였고
 - ② 金邕은 順貞의 孫이라 한 점
 - ③ 鍾銘文에 나타난 金邕의 官職은 政權을 독점하기에 족하다는 것
 - ④ 鍾銘文에서 惠恭王의 立場으로 「是知朝於元舅之賢」이라 있어 「元舅」은 金邕에 비정할 수 있다는 점
- 등이다. 이 같은 推定을 圖示하면 다음 表와 같다.



그런데 金邕은 景德王 一九年 四月부터 侍中職에 오르고 있는데 그以前에는 景德王으로부터 소의당하여 重用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것은 「三國遺事」王曆 景德王條에 「先妃三毛夫人出宮 先後」라 한 것을 보면 三毛夫人은 景德王에게 거의 버림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金邕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三毛夫人이 孝貞

伊王(干)과 함께 皇龍寺鍾을 만드는 데 四九七、五八一斤이라는 多量の 銅을 施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時期까지도 出宮된채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景德王 末期에 적극적으로 政界에 진출했던 이 아닌가 본다. 그것은 특히 어 린 王子 乾運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金良相인데, 그는 惠恭王의 「姨從兄弟」^⑩로 景德王 二三年 一月부터 侍中職에 있다가 惠恭王 四年 十月에 물러나고 있다. 그렇 보면 金良相 또한 銘文의 여러 官職은 惠恭王 四年 以後에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金邕와 金良相, 이들 二人이 惠恭王 七年에 鑄造된 神鍾銘文 속에 나란히 기록되고 그것도 각각 총책임자와 부책임자 격으로 오른 것은 鑄 鍾期間을 따지는데 어떤 重大한 暗示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겠 는가.

만일 神鍾을 景德 때着手했다면, 그 책임자들은 다른 사람이었을 가 능성이 크고, 따라서 金邕이 侍中職에서 물러나자 그를 책임자로 삼고, 또 金良相이 侍中職에서 물러나면서 부책임자가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 한다. 물론 책임자들을 차례로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神銘 을 鑄造하는 底意가 어디에 있었느냐를 理解한다면 매우 어색한 변명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다시 이들 二人이 각각 侍中職을 물러나는 理由를 想起하지 않을 수 없다. 李基白교수가 밝힌 바에 의하면, 金邕은 「天變地異」로, 金良相은 「政治的責任」으로 각각 물러났다는 것이다. ^⑪ 金邕은 비록 「天變地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표면 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神銘銘에 있는 관직으로 대체하면 서 더욱 강력히 政權을 장악하였을 것으로 본다. 金良相의 「政治的責 任」이란 惠恭王 四年 七月에 일어난 大恭亂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亂이 얼마나 큰 것이던가는 다 알려진 사실로서, 「一吉浪大恭與弟阿 浪大廉叛 集衆圍王宮三十三日 王軍討平之 誅九族」(三國史記) 同王條)이라 하였다. 이를 討平한 王軍은 兵部令 金邕의 軍隊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三國遺事」 惠恭王條의 기록 속에,

大恭角干家亡 輸其家寶帛于王宮 新城長倉火燒 逆黨之寶穀在沙梁·牟 梁等里者 亦輸入王宮 亂彌三朔乃息 被賞者頗多 誅死者無算也

라 하고 있다. 여기에 보이는 「寶帛」 「寶穀」이란 당시 權力者들이 享有 했던 奢侈와 富였을 것으로, 銘序에서 聖德王代를 찬양하는 글 속에, 「野務本農 市無濫物 時嫌金玉 世尙文才」라는 표현을 憧憬하는 현실적 배 경으로 생각한다.

李基白교수는 이들 大恭亂을 「反惠恭의 性格」^⑫으로 규정하였는 바, 한편 反金邕·金良相의 亂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叛亂을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神鍾을 鑄造 하였다고 본다. 銘銘序에,

懸舉神鍾 悟一乘之圓音：空而能鳴 其響不竭 重爲難轉 其體不褻 所以 王者元功克銘其上 羣生離苦亦在其中也

라 한 것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梵鍾의 本質에 가탁하여 王權의 權 威와 尊嚴性을 나타내고, 그에 挑戰하는 叛亂을 일으킬 수 없다는 象徵 的表現으로 본다. 비록 기원적인 의미가 있더라도 「乃至瓊夢之叢共金 柯以永茂 邦家之業 將鐵圍而弼昌」이라 한 것은 王室의 번영과 영광을 꾀 했던 표징이라고 볼만 하다. 弱體化한 王權을 앞세워 金邕·金良相이 政權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叛亂을 막기 위해서는 聖德王代를 泰 平盛代로 보고, 그 시기를 극구 찬양하며 欽望하는 銘文에서 더욱 그러 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伏惟 聖德大王 德共山河而並峻 名齊日月而高懸 舉忠良而撫俗 崇禮樂 而觀風 野務本農 市無濫物 時嫌金玉 世尙文才 不意子靈 有心老誠 四 十餘年 臨邦勤政 一無干戈警擾百姓 所以萬里歸賓 唯有欽風之望 未曾 飛矢之窺：：

라 한 것이다.

이제 생각컨대 神鍾銘은 惠恭王 七年에 鑄鍾이 完成될 것을 豫見하여 撰述된 듯하니, 銘序에서

乃願遺言 遂成宿意 尔其有司辦事 工匠畫模 歲次大淵 月惟大呂

라 한 「惟」는 물론 별로 의미가 없지만, 完工의 意志的表現이라 보이

며, 이때에 着工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그것은「述其願旨 銘記于鍾也」라한「願旨」인 것이다. 「三國遺事」 奉德寺鍾條에는,

其子惠恭大王乾運 以大曆庚戌十二月 命有司鳩工徒 乃克成之 安於奉德寺

라고 하였는데, 「大曆庚戌」은 惠恭王 六年(七七〇)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것은「大曆辛亥」의 誤記로 본 洪思俊 선생의 견해에 따르고 싶다. 단지의 심스러운 것은 一然도 神鍾銘文을 判讀 내지는 所有한 듯 해서 「文煩不錄」이라 하여 銘文을 신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以上과 같은 狀況 속에서 神鍾이 鑄造되었다면 그 鑄造期間은 지금 限定된다. 즉 金良相이 大恭亂으로 물러난 惠恭王 四年은 鑄鍾着手의 上限으로 볼 수 있는데, 다시 三國遺事에 의하여 惠恭王 六年으로 내려 그 下限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 大恭亂을 鑄鍾着手에 결정적인 拍車를 加해 준 것으로 본다면 현재의 聖德大王神鍾은 着手한지 불과 三年間에 完成되었다는 결론이 불가피하다. 鑄鍾過程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大曆六年에 完成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鑄造 背景으로 보아 대개 이때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五、聖德王의 薨年 문제

王의 薨年을 따지는 것은 한 時代의 編年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末松保和씨는「新羅의 諸問題」에서「新羅下古諸王 薨年存疑」라는 論題로 哀莊王·聖德王·景德王·元聖王·昭聖王·憲德王의 薨年에 대한「三國史記」의 記錄을 비판하였다. 필자로서는 아직 이들을 再論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神鍾銘序에,

晏駕已來 于今三十四也

라고 하는 銘記가 있어 단순히 흥미를 가진데 불과하다. 神鍾銘은「大曆六年 辛亥」를 基準으로 하여 撰하였다. 그것은「歲次 大淵月惟大呂」라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大曆六年」은 聖德王이 昇遐한 뒤 三十四년이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逆算하면 그 薨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

자의 소견이다. 그리고 이 銘文은 당시의 情況에 대하여는 찬사만으로의 곡시킨 곳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당시 기록이므로 어느 것보다 그 年代에 있어서의 算出만은 정확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史記」에서는 聖德王이 即位 三十六年(開元二十五年) 二月에 薨하였다고 하였으나 末松保和씨는 이를 부정하고 開元 二十四年 秋冬의 於間에 薨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⑯

주목되는 것은 景德王의 薨年이다. 「三國史記」는 即位 二十四年(永泰元年)에 薨하였다 하면서「古記云 永泰元年卒」이라 註하고, 또「舊唐書·資治通鑑」에 그의 薨年이 다름을 의아하게 여겨 註하였다. 이에 대해 末松씨는「景德王의 薨年을 永泰二年(大曆元年) 秋冬間으로 擬定하는 것은 지나치다 하더라도 적어도 永泰元年 六月이라한 史記의 紀年에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⑰ 고 했다. 어쨌든「三國史記」는 中國史籍에만 의존한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이제 大曆六年부터 시작하여 三十四年을 逆算해 올라가면 開元二十六年이 三十四年째로 멈추고, 이것은 薨年의 다음해이다. 당시에 開元二十六年은 一周忌가 되기 때문에 이 해부터 起算했다고 보는 경우, 「三國史記」의 聖德王 薨年인 開元二十五年은 최소한 이 銘文과 符合된다. 이것이 틀림 없다고 하면 그 前後의 編年을 따지는 데 하나의 基準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六、結 語

以上과 같이 聖德大王神鍾銘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判讀은 특히 黃壽永 박사에 의해 많이 校正되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고, 解釋에는 文字만으로 부족하며 時代背景을 감안해야 하겠다.

다음으로는 梵鍾의 概念을 銘文 속에서 찾아보았으나, 필자는 佛敎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속단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神鍾 鑄造期間을 三年內外로 보았고 金嶽은 惠恭王의 元舅로서 外叔임이 확실하다고 믿지만 景德王 때 과연 着手하지 않았는가는 아직

자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하고 싶었던 말이였다.
 끝으로 聖德王의 薨年은 기왕에 논의된 바 있고 마침銘文에 보이며
 年表를 살펴 보았다. 諸賢의 叱正을 바란다.

註

- ① 葛城末治：『朝鮮金石攷』(國書刊行會，一九七四)
 關野 貞：『朝鮮の建築と藝術』(岩波書店，一九四一)
 今西 龍：『新羅史研究』(國書刊行會，一九七〇)
- ② 洪思俊：『然齋考古論集』(考古美術資料一二輯，考古美術同人會，一九六七)
 黃壽永：『續金遺文』(考古美術資料一五輯，考古美術同人會，一九六七)
 李錫浩 譯：『東京雜記』(大洋書籍，一九七三)
 『新增東國輿地勝覽Ⅲ』(民族文化促進會 譯，一九七一)
 坪井良平：『朝鮮鐘』(一九七四)
- ③ 註①의 諸書，同一한 字를 常用字로 한 것은 表에 넣지 않았다. 行數는 鍾
 銘拓本에 따랐고，주종관의 인물은 上·下에 썼으므로，그것은 따로 行數
 를 따져 一連키 했다.
- ④ 坪井良平：『朝鮮鐘』p. 49
- ⑤ 『二國史記』卷第三十五 雜志第四 地理 長堤郡條
- ⑥ 李箕永：『元曉思想』(弘法院，一九七一年再版) p. 80-1에서 原文과 解釋
 을 붙여 인용해 놓았으므로 以下에 引用하였다.
- ⑦ 洪思俊：『然齋考古論集』
- ⑧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⑨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⑩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探求堂，一九七二) p. 102
- ⑪ 洪思俊：『然齋考古論集』p. 63
- ⑫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⑬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⑭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⑮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⑯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⑰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⑱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⑲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⑳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㉑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㉒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㉓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㉔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㉕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㉖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㉗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㉘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㉙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㉚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㉛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㉜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㉝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㉞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㉟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㊱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㊲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㊳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㊴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㊵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㊶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㊷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㊸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㊹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㊺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㊻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㊼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㊽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㊾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 ㊿ 全相運：『韓國古代的 科學』p. 103

獐項里 廢寺出土의

石造如來像의 復原과 造成年代

大西 修 也

- 一、獐項里廢寺址의 現狀과 遺物
- 二、如來像의 八角石造臺座
- 三、如來像의 現狀復原
- 四、如來像의 制作年代
- 五、如來像의 推定復原
- 六、如來像의 尊名에 關하여

獐項里 廢寺址(史蹟四十五號) 出土의 石造如來像은，現在는 國立慶州
 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다. 그러나 이 像은 完品은 아니고，頭部 胸部，
 左腕，光背等 十餘個의 斷片으로 된 佛像이다.

이들의 佛像斷片이 慶州分館에 搬入된 것은 一九三二年이었는데，當
 時 慶州古蹟保存會에 의하여 月城郡 陽北面 獐項里 塔亭의 五層石塔이
 修理復原 ① 되었을 때，寺址의 一角에 散在하였던 斷片을 彫刻이 優秀
 한 것이라고 하여 分館으로 運搬했던 것이 最初이다.

그 後에도 金堂址의 前面附近에서 斷片이 出土되었고，最近에도 佛像
 의 右胸部 斷片이 發見되어 關係者의 努力으로 다시 分館에 搬入安置되
 였고，지금에는 斷片의 數도 大·小 十三個에 이르게 되었다.

一九七三年 五月，慶州博物館에서 처음으로 獐項里 廢寺址出土의 石造
 佛斷片을 보았던 筆者는 그 彫刻의 힘찬에 感動하였고 또 佛像 頭部의 크
 기로 보아도 決코 石窟庵의 本尊에 못하지 않는 것임에 우선 놀랐다. 그
 後，日本政府의 援助로 韓國에의 留學이 實現된 것을 機會로 慶州로 갈